

4382

기획 2

전·여·대·협

전여대협이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여학생회의 전국 연대조직인 '전여대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전여대협 건설 준비기

1. 전여대협 건준위 이전 시기

(1) 연대사업의 필요성

여학생 대중조직이란 여대생의 자주성을 옹호,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결정적 담보물이며, 자치조직, 생활조직, 정치조직으로서 여대생의 자주성을 튼튼히 보위하고 올바르게 구현하는 조직만이 참다운 대중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한 학교, 한 지역의 조직만으로는 사상에서부터 정보, 실천에 이르기까지 협소함과 자기만족적 태도, 전망부족 등의 고립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조직이 제기되었습니다.

연대조직의 필요성을 정리해 보면 세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학생 운동의 통일성과 지속성을 보장해 준다.

한국의 여성운동, 여학생 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각각의 견해를 연대를 통해 해결하고자합니다. 교육과 구체적 사업방향과 조직적 과제를 논의, 집행하는 가운데 분산이 아닌 집중 있는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학생 운동의 대중적 지지와 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의 통일성을 확보하며, 그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학생 운동, 나아가 여성운동의 정치세력화를 보장해 준다.

한국의 여성억압구조는 너무나 강하고 거기에 대응할 우리의 힘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렇다고 패배감과 무력감에 젖어있기에는 한국 여성의 모습이 비참하고 조국의 운명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기에 힘이 약할수록 연대는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개인의 목소리보다 여럿의 목소리가 크고, 그것이 통일성과 지속성이 보장되어 여학생 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내고 세력을 확장하여 반여성적 세력들의 힘을 약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 여성운동의 모습상 학교간, 단체, 기층 여성과의 연대는 여성운동의 방향을 보다 확고히하는 방편입니다.

세째, 연대속에서만이 모범의 전파와 경험의 축적이 보장된다.

여대생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창조적이며 장기적인 사업태도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정보와 모범을 따라 배우고 그 오류 또한 같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큰 힘과 성과를 만들어 가기위한 노력으로 연대사업을 통해 현장속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함께 힘을 합쳤을때 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큰 성과를 내어올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부문계열에서 지역적 전국적 연대를 하면서 전국 연대조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87년 6월 대국민항쟁을 거치면서 우리 운동은 각계급, 계층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자기조직, 지기운동의 전망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며 그 속에서 부문 계열운동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전여대협 또한 많은 연대 투쟁의 경험 속에서 그 성과점을 총화하면서 전국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적 연대조직을 일구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여대협이라는 전국적 연대조직을 건설하고자 89년 처음 건설 준비위라는 모임을 건설하기전까지 우리 여학생운동의 맥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전여대협 건설을 준비한 6기까지의 평가, 그리고 그 속에서 건준위 제7기를 건설 제1기로 일대 도약하려는 지금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 건준위 이전의 상황

70년대 후반부터 '선도적 투쟁'이라는 학생운동전반에 걸친 흐름과 함께 진보적 여학생들이 비합법적 연구 씨클을 운영하면서 여성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이 하하려는 사상적인 모색과 변혁운동에서 여학생운동을 풀어가려는 노력을 해 나갔습니다.

83년 이후 학원 자율화 조치로 대중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많은 학교들이 제1대 총여학생회를 건설하면서 여성문제에 대한 선전과 각종 가두투쟁을 여회단위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TOMBOY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 등) 등을 통하여 사회적인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비합법 씨클노선의 편향을 극복하고 좀더 여학우들과 함께하는 여학생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당시 파쇼헌법철폐, 군부독재타도 등의 투쟁과 함께 여학단위에서는 모성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족법개정 투쟁 등 민주헌법에서 담겨져야할 여성들의 권리확보를 위한 투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군부독재타도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름 권인숙양 성고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여학간부들이 구속되는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남아있는 간부들이 결의를 하고 투쟁주체를 세웠으며 서울대, 고대 성대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를 결성하여 학내시의, 가두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이 투쟁을 통해 연대속에서 더욱 조직적으로 운동을 풀어나갈 수 있고, 더 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고 87년 서울지역 여학생 대표자 협의회(이하 서여대협)를 건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지역조직 강화에 기반한 전여대협 건설로의 기간의 과정을 약평하면서 전여대협 건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짚어보아야할 시기에 왔다고 할 것입니다. 전여대협 6기까지 일구어온 지역 여대협의 안정적인 발전의 성과를 받아안으면서 전국적 연대조직의 일대도약을 일궈야할 때입니다.

작년 전여대협 건설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결론을 도출한 것은 결국 사람의 문제였고, 94년 전여대협 대표자들의 결의는 과히 전여대협 건설의 구체적 고민을 하는데 원동력이었다고 할 만 한 것입니다.

전여대협이 이전처럼 시기적으로 톤 투쟁에서만, 그리고 한마당이나 수련회와 같은 행사속에서만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각 기층에서 존재하는 공통적인 문제를 지역단위에서 총화해 내고 그것이 전여대협 회의 속에서 다시 논의가 심화될 수 있는 지도단위로서 자리매김해야할 것입니다.

이제, 기층에서 가지는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주체적으로 여대협회의에 임하면서 지구단위든 지역단위든 결정된 사항에는 책임을 지는 여학생 일꾼으로서의 모습이 요구되어집니다. 또한 상층 단위에서도 기층의 문제의식을 잘 파악하고 논의를 심화시키며 정책적인 면에서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공히 연대조직의 핵심이라고 하는 '모범의 전파'를 통해 각 단위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과를 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많은 사회단체들과의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다시한번 지역운동으로서의 틀을 잡아내고 우리리 내용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데에도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왜 서여대협이 전여대협을 받아안으려고 하는가?

전여대협 건설의 요구는 어느해에나 있어왔지만 구체적인 전방을 세우려고 노력한 것은 작년 94년이었습니다. 전여대협 중앙위속에서 중앙위회의를 보좌할 중앙집행위가 없음으로 인해 중앙위회의가 내용적으로 심화되고 깊이있는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생산적인 중앙위회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위로서의 올바른 전여대협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중앙집행위가 요구되었고 그것은 바로 '사람'의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주체의 의지로 지역의장들이 이후 전망속에 전여대협 집행위로서의 결의를 모아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여대협 건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95년 전여대협을 어디에서 받아안을 것인가는 중앙내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었습니다. '건준위'에서 '건설'을 하는 단계에서 조직의 최대한의 성과를 내어올 수 있는 곳, 주체의 상황에서 요구되어지는 곳,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서여대협에서 전여대협을 받아안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다. 서여대협에서 전여대협을 받아안고자하는 이유를 을 정세와 주체적 상황에서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지역적 조건의 유리함이 있다.

서울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정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여러 여건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작년 부경여대협에서 전여대협을 받아 안으면서 지역

적인 한계가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신속하게 진행되어야할 투쟁, 여론화되어야할 사안에 있어서도 중앙집행위조차 부재한 상태에서는 지방이 가지는 취약점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여대협에서 전여대협을 받아안을 때 원활한 여대협사업의 전개와 전국적 여론화에서도 최대의 효과를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 시대적 역사적 요구이다.

95년, 어느 단위, 어떤 조직에서도 통일을 얘기하는 통일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하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대비하면서 어느 지역보다 사회의 흐름을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서 원활하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단체, 조직들과 연대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때 내용을 폭넓고 풍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 주체의 요구이다.

서여대협 운동발전의 요구인 것입니다. 서여대협이 건설 8년간에 이루어온 성과점들이 아주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있어서의 서여대협은 어느정도 담보상태라 할 수 있을 만큼 큰 발전을 내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전여대협을 받아안으면서 서여대협의 기간의 운동을 잘 평가하면서 혁신을 내어오는 계기가 요구되어진다. 안으로만 집착하는 운동이 아니라 더 높이 더 멀리 볼 수 있는 운동을 서여대협이 선두에서 돌파해 나감으로써 8년간 쌓아온 역량을 한층 더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여대협 '건준위'에서 건설의 의미를 새겨보면서 이름뿐만이 아닌 전여대협 건설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통큰 단결로 힘과 지혜가 모아질 때 여학생운동은 역사적인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